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uly 1, 2022 Vol. 819

##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위에 자유통일로 나아가자”

세기모 미서부지부, 6.25 상기 예배 및 자유 통일 위한 기도회 개최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지부장 김영구 목사, 이하 세기모)가 지난 25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영생장로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제 72주년 상기예배 및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며 한반도 자유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 순서로 치러졌다. 박세헌 목사(세기모 사무총장)가 사회를 맡은 예배에선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가 대표기도를 했고, 이경호 목사의 특별찬양 후 피종진 목사(세계기도모임 대표 총재)가 설교했다. “큰 용사라”(사사기 6: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피종진 목사는 “나라와 민족이 없는 사

람들은 고아와 같다”며 “6.25 전쟁 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자유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전했다. 설교 후 심진구 목사(미주예문교회)가 헌금기도를 했으며 장상근 전도사가 특별 찬양을 불렀다. 1부 예배는 오재조 원로 목사(사랑제일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기념행사는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엄규서 목사(남가주



세기모 미서부지부 6.25 상기 예배 및 자유 통일 위한 기도회 ©기독일보

한인목사회 증경회장)가 개회기도를 했으며 김순희 회장(대한민국 역사지킴이운동본부)의 인도로 미국과 및 애국가 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강

순영 목사(청도교운동본부)가 “6.25 한국전쟁과 미국”, 이병만 회장(미주한인재단LA)가 “6.25 한국전쟁과 이민차세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최학량 목사(이승

만대통령기념사회)가 “남북한 자유통일을 위한 남가주 교민들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 미 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었다...49년만에 공식 폐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Pixabay

미국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 '토마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대법관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에 손을 들어줬다. 다수 의견서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클라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견을 같이

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관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대 웨이드) 및 (가족계획연맹 대)케이스 판결은 기각된다”라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반환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로(판결)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 논리는 유난히 약했고,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낙태 문제에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는 대신,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헌법

에 귀 기울여야 하고, 낙태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이는 낙태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가들의 시위와 교회와 친생명단체 사무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7일 새벽 뉴욕 주의 한 임신출산 지원센터 사무실에는 화염병이 날아들어 화재가 발생했다. 8일 위스콘신주 소재 친생명단체 사무실에도 화염병 테러가 발생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당일 송금 **송금·환전** 당일 지급  
\$ 미국 ↔ 한국 ₩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2022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온캠퍼스, 라이브 ZOOM, 녹화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수강 가능

수강신청기간 | 8.1-8.5  
개강일 | 8.29

**본교 학위과정**

- | 학사과정(신학/사회복지학/글로벌경영학/가정상담학)
- | 석사과정(교역학/교역학 원목과정/상담심리학/선교학/결혼과 가족 치료)
- | 박사과정(선교학/선교학철학)
- | \*교육학 학사, 전문코칭학 석사 과정(2022년 가을학기 개설 예정)

**본교의 비전과 특징**

-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 이론과 실제, 전공 분야와 현장 경험을 통합하는 역량을 갖춘 교수진
- |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 | 현역 및 재향 군인 학자금 및 재정 지원
-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 |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특히 목사, 선교사 장학금 지원)

유학생 환영 1-20 발행  
Tel. 562.926.1023  
Fax. 562.926.1025  
www.ptsa.edu

본교 인가기관 BPPE ABHE atc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미주 기독일보와 조선일보 LA 협력을 축하합니다!"



# 남가주커뮤니온교회 류진욱 담임 목사 취임

류진욱 목사가 남가주 커뮤니온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류진욱 목사는 지난 26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진욱 목사는 한국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국제개혁대학교(IRUS)에서 교차문화학 박사 연구과정 중에 있다.

류 목사는 한국에서 서울 왕성교회와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대구 사월교회와 구미 참사랑교회를 개척 목회했다. 미국에서는 남가주 은혜로운교회를 개척해 섬겼으며, 남가주 커뮤니온교회의 청빙을 받아 은혜로운교회와 연합해 이번에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남가주커뮤니온교회 류진욱 목사

류 목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복음

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됨을 고백하

며,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서보천 목사(둘로스교회)의 기도의 이어 박헌성 목사(나성열린문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빌1:3-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박헌성 목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믿음으로 힘차게 도약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류목사와 함께 사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류 목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목회자”라고 칭찬했다. 이날 취임식은 나정기 목사(이레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 탈북 신학생 배영호 전도사 “세 번의 복송... 나를 지키신 하나님”

[1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이어]



배영호 전도사(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가 제15차 '글로벌복음통일 연합기도회'에서 간증했다. ©기드온동족선교 TV 유튜브 캡처

### 제15차 '글로벌복음통일기도회' 서 간증

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

배 전도사는 “시골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지만 나는 세 번이나 복송을 당했고 두 번은 노동교화소, 한 번은 보위부에 붙잡혀 갔다. 노동교화소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보위부에 잡혔을 때는 그 믿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온갖 고생을 다 겪은 후 퇴소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 번의 복송 후 한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다시 잡혀서 복송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용기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받은 사랑을 전하고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북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한국에 와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자리, 소망·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탈북민이 소망·비전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간증 후 기도회 참석자들은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의 인도로 회개, 북한동족, 지하성도, 억류 선교사들, 고국과 미국의 영적각성과 다음 세대들,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기도했다.

최승연 기자

최학량 목사는 “북한의 공산정권은 무너지고, 북한 전역에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질 것”이라며 “기독교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강화로 복음 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3부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의 인도로 최수일 목사(국제계시록포럼)가 “남북한 자유통일을 위해”, 여호수아 지 목사가 “북한에 주님의 성소가 회복 되도록”, 이선자 목사(세계기도교 어머니기도회)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흑암에 묶여있는 북한 2500만 동포들을 위해”, 김학송 선교사(통일장학회)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김영구 목사가 “자유통일을 위한 일천만 서명운동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김영구 목사는 “6.25 전쟁, 민족상잔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굶주림과 자유를 유린 당한채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일천만 서명운동을 통해 남가주 한인들이 자유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하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 · R · E · A · C · H · I · N · G · C · L · I · N · I · C

## 2022년 뉴노멀 시대

# 이동원 목사 초청 강해설교 클리닉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지구촌목회리더십센터 대표

▶ 일시: 10월 10일 (월) 2PM ~ 12일 (수) 9:30PM

▶ 장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특강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프리칭월드 대표)

▶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

▶ 등록비: 개인-\$150 / 부부-\$200  
9월 10일까지 등록시 개인-\$130 / 부부-\$180  
Payable to 'Preaching World'  
점심 및 교재 포함

▶ 세미나 준비 및 안내

프리칭월드 권석균 목사 (404)579-4570  
준비위원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준비위원 오정택 목사 (805)208-8242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213)718-151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 대표

오정택 목사  
주머니 교회 담임

이인규 목사  
가복교회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주최 프리칭월드

후원 글로벌신학대학원, 미주침례 신문, 월드쉐어USA, 미남침례회한인총회 남가주 지방회



# “장애·비장애 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2022 밀알 사랑의 캠프 열려

남가주밀알을 비롯해 북가주 밀알, 밴쿠버밀알 등 서부지역 밀알지단들이 연합해 주최한 2022년도 밀알 사랑의 캠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렸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예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된 사랑의 캠프는 장애인 참가자 56명, 봉사자 59명 등 184명이 참가했다.

“Perseverance (인내, 야고보서 1:12)”라는 주제로 진행된 캠프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유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시락과 피자 등 맛있는 식사가 제공됐다.

캠프 첫날에는 사랑의교실 각 브랜치 별로 Drive-thru를 통해 캠프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물티슈, 캠프 티셔츠, 등의 간단한 선물이 전달됐다. 저녁집회는 김형건 집사의 사회로 남가주밀알 부이사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가 개회 예배 설교를



“Perseverance” 주제로 열린 2022 밀알 사랑의 캠프

전했다.

이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으며,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장애인 참

가자의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장애, 비장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구원의 은혜를 동등하

게 누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캠프 둘째날에는 댄스타임, Arts & Crafts, Raffle 추첨 등 다양하고 재미난 게임들이 진행되

어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계운 박사가 ‘행복한 가정, 어떻게!!’라는 주제로 부모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 박사는 “장애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기회이고 축복”이라며 부모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전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이상현 밴쿠버밀알 단장의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린 후 댄스 공연과 함께 사랑의교실 각 브랜치 별로 공원에서 피크닉을 갖는 등 대면모임이 진행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장 이종희 목사는 “Perseverance”란 올해 주제처럼, 2년 넘도록 힘든 코로나 기간을 씩씩하게 잘 견뎌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즐겁고 유익한 캠프였다”며 “캠프를 위해 수고한 사역자, 스태프, 봉사자 및 기도로, 후원으로, 펀드레이징 물품 판매로 애써준 모든 밀알가족들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국제개혁대학교 ATS 준회원 자격 취득



국제개혁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이하 IRUS, 총장 박헌성 박사)가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 이하 ATS)의 준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IRUS는 지난 22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ATS 인준위원회 컨퍼런스에서 준회원 학교(Associate Member)로 승인을 받았다.

IRUS는 2013년 ABHE 인준에 이어 ATS 준회원 자격도 갖게 됐다.

ATS 인준위원회는 회원 자격을 통해 좋은 신학교육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심사하는 대표

적인 북미주 신학대학원 인준기관으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270여 개 신학대학원이 ATS에 가입되어 있다.

IRUS는 ATS 준회원 학교로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내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IRUS 관계자는 “ATS의 정회원 학교로 승인되면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풀러, 탤벗 등 회원 학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학점 및 학생 교류가 가능해진다”며 “학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기뻐했다.

김동욱 기자



민 김 행정(좌부터 8번째), 웨인 배 지점장(좌부터 9번째), 최화섭 이사장(좌부터 10번째) 외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오픈뱅크 세리토스지점 그랜드 오픈

오픈뱅크(행정 민 김)의 10번째 지점인 세리토스지점(지점장 웨인 배)의 그랜드 오픈 행사가 24일 열렸다.

지난 3월초 소프트오픈을 하고 그동안 영업과 고객 확장에 힘쓴 오픈뱅크 세리토스지점은 이날 은행 이사진과 경영진, 그리고 초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졌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원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목회신학대 공종대표), 안준목사(유일리미주대표), 신장민목사(용인대 대표), 유관지목사(동일교회대표), 김인식목사(KCC공종대표)

목회권 목사 책의 권자자 \$20/전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만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복음 2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독교 세계관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9

### “모로코 선교지 이야기(2)”

모로코에는 인구 백만 명이 넘는 도시가 5개가 있다. 북아프리카에서 북서쪽 가장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스페인과 해협을 끼고 근접해 있다.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가 탄자르이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계획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팀은 도시들을 들리며 전도했기에 지방에서 시외버스로 며칠에 걸쳐 오랜 시간 이동하였다. 그러나 카사블랑카에서 탄자르까지 고속열차로 2시간 10분에 가는 철도가 몇 년 전 개통되어 생활환경이 크게 높아졌다.

탄자르에서 선교하는 한인 청년들이 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선교를 결단하고 2년간 파송 받은 청년들 7명이 한 팀이 되어 1년 만에 약 30명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모로코인, 아프리카인들이 모였다.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의 모습들,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들이 반듯했다. 매주 삶의 간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귀했다. 합심하여 올려 드리는 통성기도가 간절했다.

우리 청년 선교사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영혼들에게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영적인 인도로 교회가 없던 땅에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생긴 것이다. 그들의 선교 목표가 있다.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 다섯 나라인 마그레브 창에서 현자인 학생 선교사, 중장기 선교사 1천 명 배출을 2030년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날 예배에서 YTN(직장인 청년 2년 선교사)으로 모리타니아 선교를 떠나는 아프리카 청년 알렉스와 3명의 학생 선교사의 파송식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모로코 선교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선교사 파송식 기도를 필자에게 맡겨서 영광스러운 소임을 감당하였다. 알렉스에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게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첫째는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 중보자들이 많이 세워질 것과 둘째는 부모님의 생계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 기도를 부탁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4명의 청년이 모리타니아 선교를 위해 비행기를 탔다.

이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킨 한인 청년 선교사들 뒤에는 각기 최소한 20명이 넘는 중보기도자들이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 후원교회들이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열방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의 뒤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

필자가 늘 말하듯이 지금 열방은 선교 부흥의 때이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를 지나 추수할 시기이다.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중동지역에서도, 터키 및 구소련 연방들의 독립된 나라들에서도 시리아, 이란,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태어나고 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다. 그렇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 교회가 정체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한다. 타락한 교회는 주님 명령을 받고 열방으로 향하는 주의 군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그러나 오늘도 열방에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날마다 자라고 있음에 감사한다.

### 강태광 목사의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였습니다. 독일 사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독일군과 정부는 조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국민 총궐기를 도모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설득해서 참전을 독려했습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알려집니다. 고등학생이었던 19세 소년 파울 보이머는 학교에서 전쟁 소식을 알리는 담임 칸토레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참전을 결심합니다.

파울 보이머는 클라스메이트인 크로프, 뮐러, 켈메리히 등과 함께 입대하는데, 그들은 모두 칸토레크 선생님 강의에 감동을 받아 자원 입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입대하는 같은 반 친구들이 2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같이 나라를 구하는 큰마음으로 입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에서 정하는 일반 징집 나이보다 몇 개월 빠른 특별 지원병으로 입대합니다.

파울과 그의 친구들은 10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서부전선 전방에 배치됩니다. 어린 병사들은 전투에 투입되어 치열한 전투를 경험합니다. 격렬한 전투로 파울의 친구들이 하나 둘 전사를 합니다. 전쟁의 잔혹함 때문에 친구들의 죽음을 힘들어합니다. 죽음으로 둘러싸인 전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이 무감각하게 변해가는 것에 스스로 놀랍니다. 거둬지는 전투들을 치르면서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전쟁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파울 보이머와 그의 친구들이 현실로 만나는 전쟁은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군들의 논리나 또 그 논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시민생활의 논리보다도 판이한 논리가 지배하는 판 세상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대를 하고 참전한 나름대로 숭고한 정신은 전쟁터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서 찾아 볼 수도 구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파울 보이머를 포함한 어린 군인들은 모든 이상과 신조를 잃고, 오로지 가혹하고 비정하고 부조리한 전쟁터의 현실 속에서 생존의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도 무의미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친구들 시체를 보며 파울 보이머는 정신을 차립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현실직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휴가를 얻어 고향을 방문한 파울 보이머는 기대와는 달리 휴가가 불편합니다. 처음 누나와 어머니를 만나서 뿌듯했지만, 배급제로 인하여 전쟁터보다 못한 식량부족 현상을 보고 가정형편에 대한 부담도 느낍니다. 또한 암에 걸려 초췌해진 어머니의 모습에서 보이머는 애잔함을 느낍니다. 전쟁의 현실은 자신이 그렸던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동료들의 전사를 목도하면서 전쟁의 고통을 느끼다가 고향에 와서 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고향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으로부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과 동급생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담임선생은 향토 방위대에서 편

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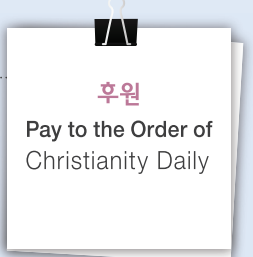
전쟁에 복귀해서 파울은 어느 날, 교회 근처에서 전투 중에 젊은 프랑스 병사를 죽입니다. 서로 아무런 원한도 없고, 증오도 없는데 다만 전쟁의 광란 속에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번도 대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었는데 전쟁의 시스템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산에게 놀랍니다. 파울은 죽은 프랑스 병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병사의 가족사진을 보고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파울 보이머는 친한 급우였고, 전우인 알베르트와 함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같이 후방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이머의 부상은 별문제 없이 치료되었지만, 알베르트는 결국 다리를 절단합니다. 이후 둘은 서머해집니다. 알베르트는 불구의 몸으로는 살지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파울 보이머는 알베르트에게 말 못 할 미안함이 있습니다. 보이머는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죽음과 자살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파울 보이머는 차라리 전선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1918년 가을의 어느 날에 오랜만에 전투는 소강상태이고 쾌청한 날씨입니다. 병사들은 전쟁 중이라는 것도 잊고 누군가가 부는 하모니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파울의 눈은 날고 있는 나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평화처럼 생각되어 참호에서 몸을 일으켜 나비에 손을 내미는 순간 적의 저격병이 파울을 저격합니다. 파울은 전사합니다. 파울 보이머가 전사했던 그 날도 전선은 종일 조용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본국에 짧고 명료한 전문을 보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월드미션대학교

## 간호학과 (RN to BSN) 신입생 모집

- 간호학 디플로마 및 RN 면허증 소지자
- 18개월 과정
- 실시간 줌 수업 및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 근거기반 실무교육
- 연방정부 그랜트 및 장학금 혜택

6월30일까지 입학 등록시 행정비 전액 면제

###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Tel : (213)388-1000 | E-mail : admissions@wmu.edu





# “준비 안 된 통일 무의미... 복음통일 준비해야”

## [인터뷰] 제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앞둔 임현수·박상원 목사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가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컨퍼런스를 ‘오직 복음통일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휴스턴 한빛장로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북한 선교 전문가들과 탈북 청년들이 연합해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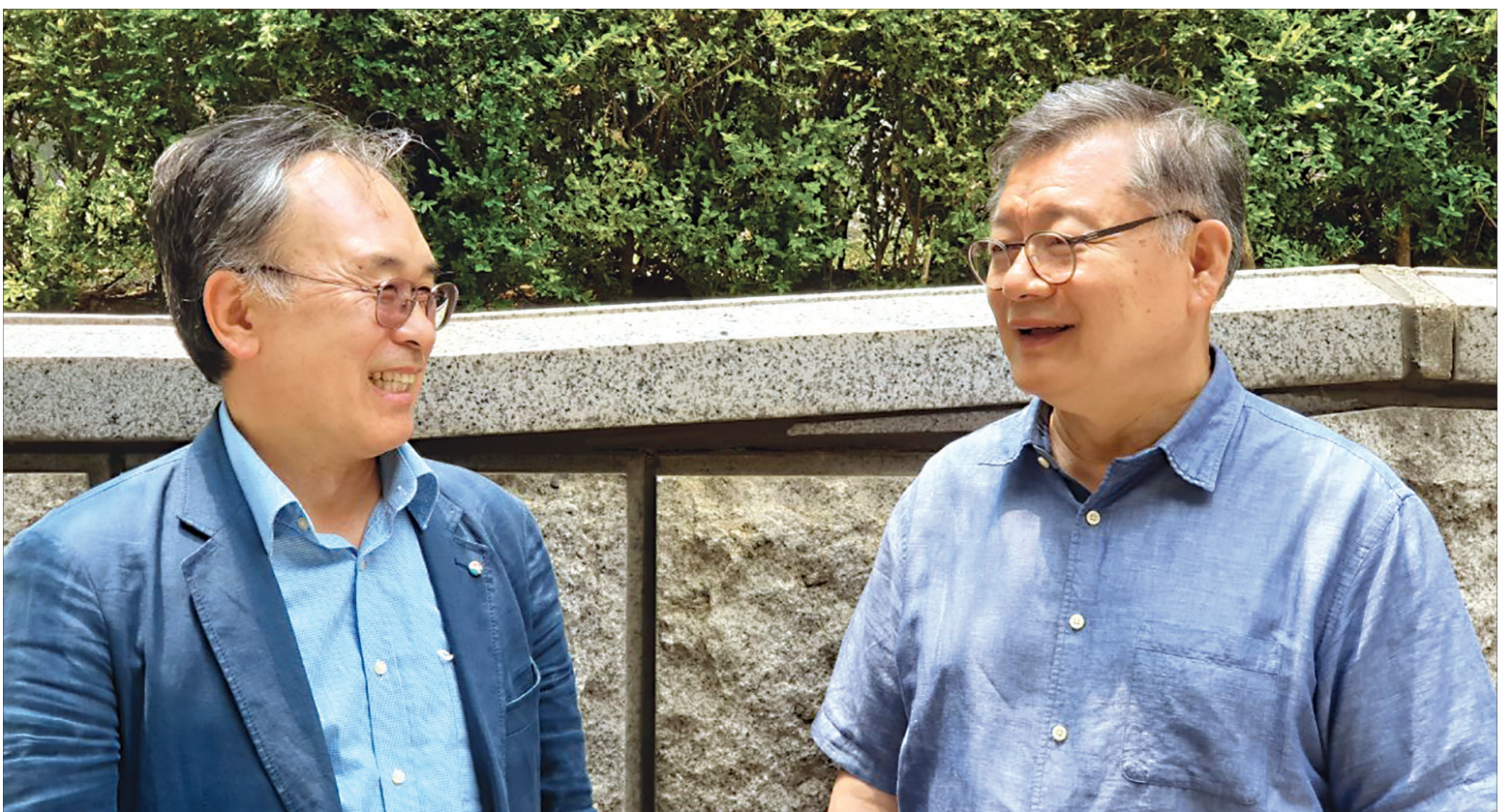
강사들로는 북한 역류 경험이 있는 임현수 목사를 비롯해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원로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담임목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 흰돌교회 오창희 담임목사 등이 나선다.

특히 이번 선교 컨퍼런스에서는 탈북 경험이 있는 젊은 탈북자 청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탈북 상황과 북한 선교에 필요한 사역과 노하우를 북한 주민의 시각에서 전할 예정이다.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 미국 LA 파세데나에서 제1차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열지 못했고, 2021년에는 하와이 코나에서 제2차 대회를 가졌지만 계속된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게 정상화된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관계자들 역시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에 분지는 컨퍼런스 대회장인 임현수 목사와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사무총장인 박상원 목사를 만나 컨퍼런스 취지와 의의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이번 컨퍼런스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입니까?  
임현수 목사 “다가오는 통일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컨퍼런스 대회장인 임현수 목사(오른쪽)와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기독일보

### 임현수 목사 “탈북민 신학생,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 박상원 목사 “통일 시대 주역, 청년들 참여 절실”

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통일이야만 하기에 복음통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에 세번째로 모이는 세미나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음 특공대’ 5백 명, 목회자 2만 명, 선교사 1만 명, 그리고 청년들과 외국인들,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등 수천 명을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인 선교컨퍼런스를 계속하게 된 이유입니다.”

- 이번에 15명의 탈북 신학생들이 특별게스트로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임현수 목사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탈북민들 가운데 신학생들은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도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요?

임현수 목사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통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평화의 중재자로서 남과 북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민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조국

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눈여겨 볼만한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상원 목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미주한인교단의 대표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주제로 간담회도 가지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통일과 관련된 글쓰기, 5분 스피치,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선교와 관련된 행사는 주로 강연 위주의 일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쌍방향식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일 시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와 관련해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박상원 목사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라는 전문화된 영역을 포용하고 복음통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교단을 초월한 ‘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각 영역을 네트워킹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전문가들과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복음 안에서 조율해 하나의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참여문의는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혹은 휴스턴 한빛장로교회 전화 (713)643-4348 로 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mailto:inexcollisioncenter@gmail.com)

최신 사고양행서 원무수리만 원하시면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가대교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h3 style="text-align: center;">신입생 모집</h3> <p><b>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b> Korean Doctor of Mini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의 교수진</li> <li>•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li> <li>• 실용적인 사역 대비</li> <li>• 오프라인 수업</li> <li>• 미국 비자 (I-20) 발급</li> </ul> <p>카카오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p> <p>Email: <a href="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talbot.korean.dmin@biola.edu</a>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Tel: 562-903-4705</p>	<h3 style="text-align: center;">미성대학교</h3> <p>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HE, ATS 정회원</li> <li>• 기독교대학의 최첨단시설(D.A.)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li> <li>•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li> <li>•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li> <li>•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이상훈 박사</p> <p>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a href="http://www.aeu.edu/mic@aeu.edu">www.aeu.edu/mic@aeu.edu</a></p>	<h3 style="text-align: center;">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h3>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li> <li>- 100% 한국어</li> <li>- I-20 발급</li> <li>-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li> </ul>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a href="mailto:ks@mbts.edu">ks@mbts.edu</a></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h3 style="text-align: center;">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h3>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a href="http://www.ptsa.edu">www.ptsa.edu</a></p>
<h3 style="text-align: center;">월드미션대학교</h3> <p>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HE, ATS 정회원</li> <li>•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li> <li>• 온캠패스와 온라인 프로그램</li> <li>•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li> <li>•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li> </ul>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a href="http://www.wmu.edu">www.wmu.edu</a> <a href="mailto:admissions@wmu.edu">admissions@wmu.edu</a></p>	<h3 style="text-align: center;">복음대학교</h3> <p>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CS 정회원 인증</li> <li>•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li> <li>•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li> <li>•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li> <li>•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li> <li>•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li> </ul>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a href="http://www.evangelia.edu">www.evangelia.edu</a> <a href="mailto:info@evangelia.edu">info@evangelia.edu</a></p>	<h3 style="text-align: center;">GATEWAY SEMINARY</h3> <p>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b>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b></p> <p>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p>	<h3 style="text-align: center;">그레이스 미션 대학교</h3> <p>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 href="mailto:admissions@gm.edu">admissions@gm.edu</a> <a href="http://www.gm.edu">www.gm.edu</a></p>
<h3 style="text-align: center;">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h3>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입학문의 87.(626)857-2200</p>	<h3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침례신학교</h3> <p>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amp; Seminary</p> <p>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p> <p><a href="http://www.gbts.org">www.gbts.org</a>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 href="mailto:1aurahello@gmail.com">1aurahello@gmail.com</a> 전화 1 508-826-5145</p>	<h3 style="text-align: center;">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h3>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a href="http://korean.fuller.edu">http://korean.fuller.edu</a></p>	<h3 style="text-align: center;">ITS 신학대학원</h3> <p>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p> <p>“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S 선교학 석사</li> <li>• M.Div 목회학석사</li> <li>• Th.M 신학석사</li> <li>• D.Min 목회학박사</li> </ul> <p>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p>



# 본국 법원 “대면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판결

### 과거 서울시 처분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가 두 차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에 있는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법원의 이 같은 선고 이유가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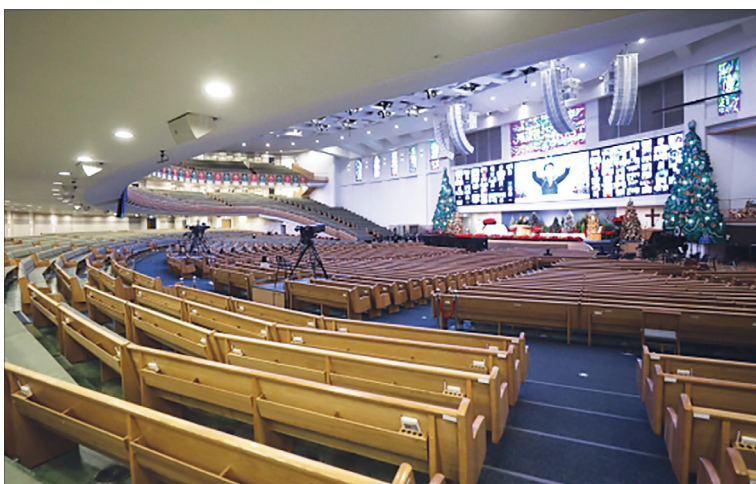
#### ◆ 교회들의 주장은?

원고 교회들의 핵심 주장은 ①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예배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②또한, 서울시가 음식점 등 다른 중위험시설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했음에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합을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교회를 차별해 '평등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즉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면예배 참석인원의 제한 내지 예배 이외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을 낮추는 다른 수단을 통해 원고들의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서울시장)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



사랑의교회가 2020년 12월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채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 ◆ '비례의 원칙' 위반

우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선, 대면예배 자체를 금지한 조치가 지나치다고 봤다. 법원은 "생계

유지와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을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예배를 위해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선택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집합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 ◆ '평등원칙' 위반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음식점이나 PC방 등 동일하게 중위험시설에 속했던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더 강한 것이어서 교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비대면 예배, 대면예배와 동일하다 보기 어려워'

법원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비대면 방식의 예배가 충분히 가능한 교회라 하더라도, 기독교 전통의 예배에는 성찬식과 같이 비대면으로는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절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리상 예배의 참여가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며 예배는 교인들의 대면예배를 전제로 교인들이 모여 설교, 찬양, 기도 등으로 이루어진 절차에 따라 집전되었는 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비대면 예배가 대면예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로?” ... ‘그렇다’ 44.7% 불과

22.05.30 ~ 22.06.12

Q. (목사님만 응답해주세요)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로 사시겠습니까?



총 476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44.7%,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1.1%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도 24.2%였다.

‘아니다’ 31.1%, ‘모르겠다’ 24.2%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될 것인가'라는 다소 '용감한' 질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간단한 질문을 담은 넘버즈 poll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연구소는 회원들을 대상으

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로 사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목사님만 응답해 달라'고 제한을 뒀고, 476명이 응답했다.

이에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44.7%였다. 반대로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1.1%

였다. '모르겠다'며 신중하면서도 고뇌에 찬 답을 한 이들도 24.2%였다. '그렇다'라고 선뜻 답하지 못한 이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한 것이다.

목회에 대한 고충은 다른 설문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4월 예정 통합(총회장 류영모) 소속 목회자 98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번아웃' 상태에 처한 목회자가 10명 중 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번아웃'이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교회 규모로 보면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 목회자의 경우 무려 절반 가까이(47%)가 '번아웃'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로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져서', '교인들이 계속 줄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 건강이 안좋아서(체력 고갈)', '장로·안수집사 등 교인들과 갈등이 심해서' 등을 꼽았다. 송경호 기자

### ‘탈북민 대모’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별세



‘탈북민 대모’로 불리는 주선애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북한 평양에서 1924년 태어나

6.25가 발발하기 전인 1948년 월남한 고인은 평양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뒤 영남대와 미국 뉴욕의 비블리컬신학교에서 각각 영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독교교육 학자로 숭실대와 장신대에서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퇴임 후 경기도 포천의 은성수도원을 인수해 장신대에 경건훈련원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탈북민들을 도와 왔다.

YWCA 전국연합회 회장, 예정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대구 신망고교원 원장으로 고아들을 돌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중추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중추추출물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코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신속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체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체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 실험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켜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NOW OFFER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DP(11<sup>TH</sup>~12<sup>TH</sup>)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예배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626)744-9191 www.lolmc.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 (3719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25 수요일성경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B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8: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강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가정)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기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O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동성애 친구의 삶 긍정하는 것, 진정한 사랑 아니다”

美 버지니아 코너스톤 체플의 게릭 햄릭 목사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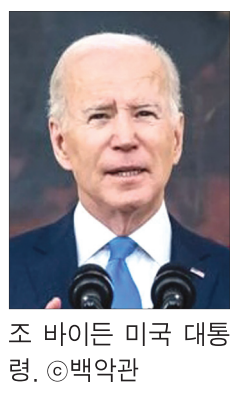
게릭 햄릭 목사. ©코너스톤 체플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버지니아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달해야 하지만, LGBT 생활 방식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스버그에 소재한 코너스톤체플(Cornerstone Chapel)의 게릭 햄릭(Gary Hamrick) 담임목사는 최근 ‘질 의 응답’(Question, Answers & More) 시간을 갖고,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LGBT 행동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한 참석자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어린 세대로부터, 미래의 또래 집단으로부터 성적 유동성 수용을 강요받는 것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에 햄릭 목사는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들이 현실 세계로부터 너무 동떨어질까봐 두려워, 과도하게 일찍부터 젠더 유동성(gender fluidity)과 성생활(sexuality)이라는 개념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 나이에 그들을 노출시킨 나이에 무언가에 노출되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해롭다”고 조언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창 1:27)와 같은 성경구절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랑은 사랑이

다”라고 주장하는 LGBT 친구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햄릭 목사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여러분의 신앙 체계의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기준, 그 설명, 그 정의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햄릭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 이슈에 대해 아주 좋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극단’에 속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정말 가혹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중간의 균형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공유할 때 반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바이든 행정부, 민권법 수정안으로 성적 재정의 시도”

보수 진영 우려 제기... “여성 위험에 빠뜨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미 교육부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해 성차별을 더욱 명확히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연방 민권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보수단체와 시민단체 및 여성 운동선수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교육의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타이틀 IX’ (Title IX)를 변경해 ‘성’을 재정의 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23일, 1972년 통과된 교육 수정안 타이틀IX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발표했다. 타이틀IX의 본래 목적은 운동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이 수정안을 LGBTIQ+등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했다. 마구엘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타이틀IX는 미국의 학교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동등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교육 환경 내에서의 성폭력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법안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안된 변경안을 통해 이 같은 진전을 계속 이어가고, 모든 학생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와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편집한 팩트 시트는 타

이들IX에 대한 수정안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특징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LGBTIQ+학생들을 보호할 것”임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일부 제한된 영역을 제외하고 타이틀IX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서는 “교육부는 특정 남성 또는 여성 운동팀에 대한 학생의 자격을 다루기 위해 타이틀IX를 수정해야 할지 여부와 수정 방식을 다루기 위해 수정안과 별도의 공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안된 수정안은 “18개 주에서 트랜스로 식별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생물학적 차이가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보다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우려를 인용했다. 트랜스젠더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육상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원리프로젝트(APP)의 테리 스틸링 회장은 “50년 전 의회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IX를 통과시켰다. 오늘날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보호를 없애고 여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우리 학교에 성적 정신 이상(gender insanity)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라우터카운티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성과 여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지난해 버지니아에서는 차마를 입은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터무니없는 침해”라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 美 장로교, '퀴어링 바이블' 프로젝트 시작해 논란



미국 켄터키 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미국장로교(PCUSA) 총회 본부. ©PCUSA.

미국장로교(PCUSA)와 연계된 한 단체가 올 여름 성소수자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퀴어링 더 바이블'(Queering Bible)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편집자인 리 카토 목사는 교단지인 장로교뉴스서비스(Presbyterian News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이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퀴어라는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지, 퀴어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배우는 방식"이라며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경험을 가진 이들, 소외된 이들을 만나는 이야기이다"라고 했다.

그는 "PCUSA가 동성애 프라이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무지개 깃발을 들고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을 넘어 교단이 퀴어를 환영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벤자민 페리 목사의 '퀴어링 마가' 연구는 세례 요한의 경험을 동성애자 개인의 경험과 비교해 "동성애 공동체 사람들은 요한처럼 오래 살았고, 문화가 제한하려는 방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와 몸에 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고 했다.

카토 목사는 "이성애자 백인 남성의 신학적 토대가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성경들이 매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다음 신학으로 만든 이성애자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퀴어링을 생각할 때 성경을 읽고, 보고, 그 렌즈를 통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목소리를 정말로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퀴어링 더 바이블 프로젝트는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이질적·규범적 방식에 반대하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신학을 창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PCUSA는 이에 대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CP)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강해진 기자

# "미국인, 비교파 교회 선호도 증가... 탈조직화 성향 커"



A.R. 버나드 목사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초교파 교회인 기독교 문화 센터(Christian Cultural Center)에서 열린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Christian Cultural Center

## 라이프웨이 리서치 보고서, 응답자 57% "비교파 교회 선호"

미국인들이 교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반면, 비교파 교회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2021년 9월 3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인 1,005명을 대상으로 '교파에 대한 미국인의 관점'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33%)만이 "비교파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교파에 속한 어떤 교회보다 배제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순절 교파의 교회일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해당 교회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다른 7개 교파에서도 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미국인의 약 47%는 감리교나 루터교 교회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48%는 가톨릭교회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남침례교와 장로교 교회일 경우, 응

답자의 46%가 해당 교회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교회는 응답자의 47%가 거부했으며, 침례교파 교회는 43%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교파는 침례교(61%)였으며, 가톨릭(57%), 감리교(55%), 장로교(53%), 루터교(51%), 남침례교(50%), 오순절교(47%), 하나님의 성회(43%) 순이었다. 비교파 교회에 대한 선호도는 57%를 차지했다.

텍사스 A&M 대학의 종교학 조교수인 로빈 벨드만은 'The Battalion'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교파적 교회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부분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가 조직화된 종교에서 멀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했다.

벨드만은 "사람들이 제도화된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들이 반드시 교단 상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체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적일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여름 찬양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OC제물**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찬양 오후 7: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235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195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8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8: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초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예배 오전 9:30, 11:30  
한여름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림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름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찬양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만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자예배: 오후 7시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령일: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ia@gmail.com



# 우크라 현지 교회, 포화 속에서도 전도와 구호 계속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출신 12명으로 구성된 한 교회가 영웅적인 행동으로 칭찬받고 있다. 목회자 역시 마약 중독자 출신인 이 교회가 현지에 남아 복음을 전하고 구호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르 투르구노프(Alexander Turgunov) 목사와 그가 섬기는 '변화산 교회'(Church of the Transfiguration) 성도들은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지하실과 방공호에 숨어 지내는 세베로도네츠크 주민들에게 음식과 기저귀, 의복과 약품 및 신약성경을 공급하고 말씀을 전했다.

심지어 이 성도들은 투르구노프 목사가 사는 아파트 건물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조차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일부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아파트로 이주하여 함께 지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 Ko-



'변화산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알렉산드르 투르구노프(가운데 키 큰 사람) 목사.

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세상은 투르구노프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녹색 순교자'라고 부른다"고 했다.

순교자의소리는 '골로스 무치 니카프 꼬레야' (한국순교자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펴발하는

기독교인에 관한 러시아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또 순교자의소리는 투르구노프 목사나 '변화산 교회' 같은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이 성도들은 기독교인에게 극도로 위험한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쟁 발발 전, 투르구노프 목사는 5년 동안 세베로도네츠크 지역 곳곳을 다니며 병원과 결핵 진료소와 약국을 방문했고, 어디에서든지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발견하면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전파했다. 투르구노프 목사는 "광

은 사람이 제 간증을 듣고 재활 센터에 들어가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가족들과 다시 모여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투르구노프 목사와 그의 교회는 세베로도네츠크시 당국 및 사회 복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저소득 가정, 대가족,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다가가기 위해 힘쓰고, 그러한 가족들을 교회 모임과 성도들 가정에 초대하고 음식을 나눠 줬다. 전쟁 몇 개월 전, 그 교회는 세베로도네츠크시에서 재활 사역을 시작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성도들은 그러한 사역을 보류해야만 했지만, 그동안 사역을 하며 습득한 기술은 훨씬 더 큰 규모로 필요하게 됐다.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이웃들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도시 전역의 주소들로 음식과 다른 구호물품을 배달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년내 소녀 4500만명 조혼 위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사는 4천5백만 여 명의 소녀들이 향후 10년 안에 조혼(미성년 여성 강제결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16일 '아프리카의 조혼 및 여성 할례에 대한 대륙 및 지역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지역 기관의 참여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조혼과 여성 할례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퍼져 있고, 사헬 전역과 중앙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특히 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10개국 중 9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여기에는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말리,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남수단, 기니, 나이지리아가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에서 약 1억 4천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할례(여성 생식기 절단)를 겪었으며, 그중 4천만

명 이상이 조혼을 경험했다.

유니세프 서·중앙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마리 피에르 푸아리에는 "조혼 근절이 유니세프의 최우선 과제다.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혼의 주요 요인인 빈곤을 줄이고, 소녀들의 양질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소녀와 여성이 사회 경제생활에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사회 및 행동 양식의 변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대륙 차원에서 2030년까지 모든 해로운 관행을 없애기 위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5.3)에 도달하는 데 계속 뒤처지고 있다.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가 어린이 보호법과 정책을 연구해 공동으로 옹호하고, 아동 권리문제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감시 조치,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진 기자

## “세계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 완전히 사라질 위험 처해”

기독교인의 존재가 박해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 보고서가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오픈도어가 발표한 'The Church on the Run' 보고서는 기독교 인구를 약화, 침묵 또는 완전히 근절시키려는 고의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주(displacement)는 때때로 박해의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로 인식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의도적이며 마을, 지역 또는 국가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더 넓은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그 전략은 노골적이다. 다른 곳에서는 은밀하고 비공식적"이라고 밝혔다.

오픈도어 글로벌젠더박해 전문가인 헬렌 피셔는 "이 고의적인 전략의 일부는 종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흔한 추방 동인은 그들의 가족이다. 지방 및 중앙정부 관리, 지역사회, 폭력적인 종교단체가 그 뒤를 이었다. 개종자들은 죽음이나 폭력의 위협을 받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 ©오픈도어 인터내셔널

고 음식과 거처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살해 위기에 처했으며, 도피가 유일한 선택으로 여겨질 정도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기독교인 개종자의 가족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관리나 지역사회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개종자를 강제로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도어가 발표한 세계 감시목록 연례 순위에서 상위 76개국 중 58

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이 난민의 원인이거나 기여한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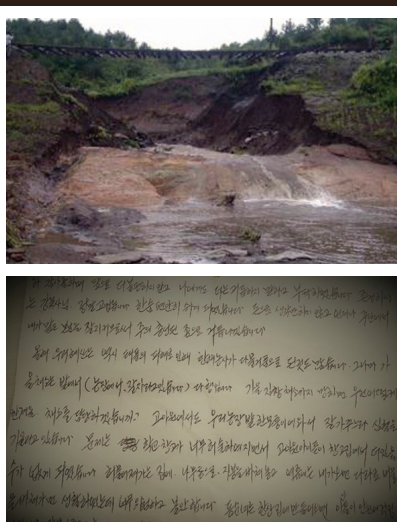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안전을 위해 수용소로 피신한다 해도 신앙으로 인해 그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는 캠프 내부의 다른 난민 공동체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지원을 거부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도전은 NGO, 국제기구 및 수용국을 포함한 인도주의 활동가의 이해 부족과 효과적인 대응 부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미경 기자

##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숨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인생이란

시편 103:10-2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인생(人生).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통곡으로 시작을 하고 살면서 한숨 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절망,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기도 하다가 때론 자신의 기대와 꿈과 잘 들어맞는 삶을 살게 되면 기뻐 뛰며 살다가도, 늘 좋았던 날수보다 괴로웠던 날이 더 많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일까요?

여러분은 잘된 것은 내 덕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며, 이토록 불행한 것 또한 팔자소관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안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흠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흠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보물로 알고 잘못 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 그릇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단지 가 될 것이며,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단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온갖 좋은 조건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후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적 기대, 허욕과 탐심을 자주 자극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미끼에 걸려 완전히 신세 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 영원토록 그 죄값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11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중략)...그 인자하심이 크심 이로다”했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죄를 가장 먼 곳으로 버렸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13절은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자식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

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도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망을 그르쳤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다 못해 하나 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값으로 죽을 자리에 내어주시므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26~27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얼마나 겁 없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상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15~16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했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내세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17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한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목적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관리, 사용하셔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와 저주,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성령을 모셔들인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에서 굉장히 부자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大文豪), 즉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매우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의 글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음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어 부자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동장에 이끌려 다니며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에 불만이 쌓여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당을 반대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

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농민운동을 하려다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탐독하고 목회자들을 통해 질문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재물도, 지위, 명예, 젊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인생은 신적 창조물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며 그분께 붙으면 되살아나서 다시 살 수 있고 그분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멋대로 인생을 설계해서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속아 살았던 지난날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쓴 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6:8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어리석고 비참하게 잘못살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지옥길이란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성령에 의지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12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했습니다. 교회까지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영생을 취하려는 노력도 없이 건성으로 왔다갔다 하다가는 결국 구원얻지 못하고 지옥 유흥불구덩이에 들어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되고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허황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7:3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체험,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11-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중략)...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했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듯 우리의 인생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ats ATS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b>학위과정</b>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b>특혜</b>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TRACS 학위 인가 기념으로 2022년 가을학기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등록 신청시 20% 장학금을추가 지급함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 doctoral@gm.edu

**이벤트 2.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6월 30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3. 화상입학설명회**  
6월 17일 오후 4시 Zoom  
7월 15일 오후 4시 Zoom  
Zoom 컨퍼런스ID: 648-961-5938 pw: 2020  
\*학교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학교홈페이지 GM.EDU에서 LiveChat으로 입학 상담 가능

Tel: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 **강준민 칼럼**

#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히 11:3).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요 1:1).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3).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는 말씀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창조력, 감화력, 치유력, 그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믿음이 담기고, 확신이 담기고, 감정이 담길 때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은 우리가 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상처를 치유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언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언어의 뿌리는 마음의 생각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말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천지창조를 꿈꾸시고, 상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디자이너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색깔이 함께 담겨 있었습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이 모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경탄하는 저녁노을 하늘의 색깔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영혼의 색깔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생각도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렘 6:19).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복이 임하기도 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선택해야 하듯이, 생각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각의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임스 알렌은 “좋은 나쁜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 영향이 성격과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물론 모든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할 때 그 생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이 아이디어와 사람과 물질을 견인해줍니다. 그래서 깊이

숙고하는 중에 목표를 글로 쓰고, 글로 쓴 목표를 따라 기도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엢 3:20).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훈련은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생각의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생각의 근육이 강화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 성경적 생각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삶의 질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2005년 겨울, 그러니까 전용식이 죽기 1년 전 광산보위지도원의 부탁으로 트럭을 끌고 제철

소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 이 일로 두 사람은 형님 동생 하는 매우 막역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서로 지향하는 목적이 달랐다. 광산보위지도원은 전용식을 이용해 이 문을 얻을 요량이었고, 전용식은 이를 계기로 광산보위지도원을 전도할 요량이었던 것이다.

전용식이 광산보위지도원의 부탁으로 트럭을 끌고 제철소에 다녀왔다면, 이는 분명 제철소 보위지도원과 비밀리에 약속을 하고 타국에 팔아먹을 금수를 실어 왔을 것이라는 게 동료들의 추론이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전용식은 광산보위지도원에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런 탓에 동료들은 광산보위지도원이 전용식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광산보위지도원은 살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용식을 매장시킬 방법이 없었을까? 이미 광업 부문의 간부들을 모두 전도하다시피 한 전용식이니 그것을 빌미로 반혁명이니 적색분자로 몰아 감옥에 처넣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광산보위지도원이 위험할 수 있다. 전용식이 그의 비리를 털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하지만 운명을 달리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며 주님이 주신 육신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용식이 그토록 갈망하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하나님, 전용식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육신의 생명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목숨

을 보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남은 저와 동료들이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시오,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도 삼가 조심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체험한 L**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주시며, 우리의 성격과 재능,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 수련회와 단기선교들을 준비하며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관과 모임들의 수련회와 단기 선교들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북미총회가 주관하는 EM 사역자 및 PK 수련회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9명이 참석하는데, 26일 주일 밤에 출발하여 목요일 돌아옵니다. 또 친구 목회협력위원회 24명이 선교와 다음세대를 위한 앵커리지 수련회로 갔다가 금요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7월 첫째 주간에는 WG(영어중고등부)가 주관하는 아리조나 인디안 단기선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주에는 전 교역자 간사 가족수련회가 3박4일로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JVT(한어중고등) & WG(영어중고등)의 연합수련회가 나성 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일 오후부터 도미니카 8차 단기선교가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갇혔던 마음과 환경이 열리고, 각 교구와 기관들의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주의 일들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단기선교를 갔었지만,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수련회와 같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몇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모임과 활동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갇히고 막혔던 상황들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인 스트레스들이 적지 않았습니. 그런데 탁 트인 하늘이나 바다를 보고, 같이 먹고 지내며 깊은 위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게 방전되고 또 다른 자극과 충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만이 아니라 쉽게 고갈 되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수련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하여 결단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움직임을 두려워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떤 것도 협력하

여 선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남을 섬기는 협력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수련회나 단기선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태도를 영적으로 바르게 훈련하는 것인데,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먼저 남을 섬기는 협력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즉 'Not I, But Christ!'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향기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수련회와 단기선교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성령 충만한 믿음공동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로와 교제를 나누고, 같은 비행기나 차를 타고 함께 웃고 대화하는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에너지는 쉽

### 좋은 교회는 멀어도 간다

수년 전 La Canada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성도가 "왜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오나?"고 물어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아 혼란스러웠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좋은 대학은 멀어도 갑니다. 좋은 교회 역시 멀어도 갑니다." 이분은 제 말에 격려를 받아 등록을 하고, 결국은 교회가 좋아서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택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운전해서 직장에 가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무실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면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점점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입니다. 집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회사로 나가려면 제일 먼저 개스비가 지출됩니다. 요즘같이 개스비가 천정부지로 솟는 때는 가능하면 집에 있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 이겠지요. 최근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회사로 출근하는데 쓰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즉 재택 근무자들이 늘었고, 회사로 직접 나가기 위해서 운전을 멀리까지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운전 시간은 평균 25분이며, 이보다 더 걸리면 회사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런 현상은 요즘 교회 출석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출석 교인수가 팬데믹 이전의 60-70%에 못 미치고 있습니. 물론 이사를 가서 떠난 성도들도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발전하면서 굳이 복잡하게 예배 현장에 가는 것보다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경향이, 지금의 낮아진 현장 예배 출석률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 가는 평균 운전 시간이 6-15분이었는데, 지금은 5명 중 1명은 교회까지의 운전 시간이 5분 미만이며, 교회까지 30분 이상 운전할 의향이 있다는 성도는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뀌고 있는 예배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현장감은 아무리 최첨단 영상기술로도 대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TV 전도자들이 안수 기도한다면서, TV 화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분위기를 마십니다. 좋은 음악을 좋은 스피커로 집에서 들을 수 있음에도 음악회의 분위기를 즐기며 현장에 가듯이, 또한 인스타그램으로 명화를 볼 수 있어도, 미술 전시회에 가서 그 분위기를 감상하듯이, 예배에는 현장에서만 느끼고, 현장에서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도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이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http://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 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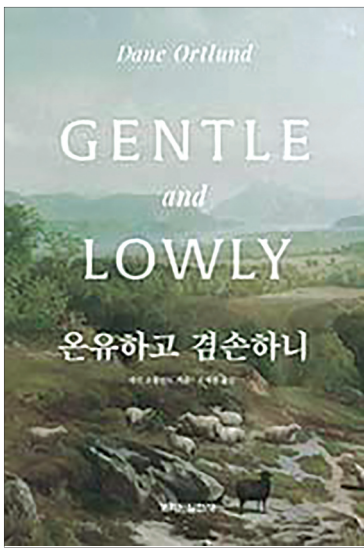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깊이 빠져들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많고 커도,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데인 오틀런드 | 조계광 역  
개혁된실천사 | 280쪽

죄인과  
고난받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

천국을 향한 여행길에서  
지치고 비틀거리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은  
무엇인가?

이 책은 2020년 ACBC (Association of Certified Biblical Counselors)에서 선정한 최고의 책 중 하나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블로거로 많은 서평을 남긴 팀 챈리스는 이 책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돕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D. A. 카슨, 러셀 무어, 마이클 리브스, 폴 트립, 브라이언 채플 등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학자, 상담가, 목사 등이 추천하면서 극찬한 책이다. 하지만 존 맥아더 목사 기관 사역인 ‘Grace to You’ 블로그에서 한 기고자가 남긴 비판 때문에 이슈가 된 책이기도 하다.

데인 오틀런드는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한 네퍼빌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기독교 출판사인 크로스웨이 출판사의 책임 부사장이기도 했다. 국내엔 2018년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두란노)>를 팀 켈러, 마이클 호튼과 함께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책이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들과 함께 삼위일체적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풀고 계심을 알게 하는 책이다.

존 번연과 토머스 굿윈,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교도적 묵상과 신학이 힘있게 전달되는 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 책이 누군

가의 비판 대상이 되었을까? 저자 오틀런드는 이렇게 말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상호성, 주고받기, 균형, 평형을 지향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율법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 안에도 건전하고, 영광스러운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성향도 우리의 다른 모든 성향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타락으로 인해 오염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이해가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인 줄 착각한다(198쪽).”

저자는 이 책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말했다. 하나님의 단순성(그분의 성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시소 같은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지한다. 죄와 치열하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가 우려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근심

하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냉소적이고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저자가 말한 ‘율법적인 성향’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악한 성향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심지어 ‘이건 순종과 거룩을 위해 균형을 잡는 것뿐이야’,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선 어쩔 수 없어’라고 잘못된 합리화를 시도한다.

오틀런드의 설명이 편향된 것이 아니다. 그는 그가 약속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이 묘사하는 방식대로 설명할 뿐이다.

중간중간 그는 방종과 방탕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성경의 가르침과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그가 굿윈, 그리고 번연과 함께 깊이 묵상하기 원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배하는 본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그분의 사랑이 거룩함보다 크다고 말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길고 깊고 넓은지 충분히 묵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사랑하게 하는 동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원하셨던 모습이다.

그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맛보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은 찾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함과 거룩함, 가차 없는 공의를 하나님의 마음에 제멋대로 채워 넣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에 담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에 빠지는 것이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술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내버려야 할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 많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데인 오틀런드의 <온유하고 겸손하니>를 통해 그 본능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억지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폭 빠져보기를 권한다. 당신이 나와 같다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온유하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자 친구이며 구세주이자 영원한 신랑 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많고 커도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당신을 향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7월, 작가들의 말말말①]

◆이인호 -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는 생각의 싸움이다. 먼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즉 시선이 믿음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근심하게 되고 한숨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



게 된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운동도 자기 몸에 맞게 시작해서 점점 운동량과 강도를 늘려 가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기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도 잘 안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느니 ‘하루에 5분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라. 그러면 그 작은 결심을 시작으로 결국 기도의 깊이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 시간을 정해 놓고 최소한 그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버나드 엘러(저자), 황의무 & 배용해(옮긴이) - 무장하지 않은 자들을 무장시키는 왕

제2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의 평화의 왕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제시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구주


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세속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영광스럽고 강력한 왕의 모습이다.

제2이사야가 평화의 왕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바꾼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 대리인이며, 따라서 그의 방법은 곧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위해 싸우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2이사야가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은 소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과

는 ‘싸움’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 좋은 무력을 행사하기보다 연약함을 드러내며, 자랑하기보다 겸손하며, 공적인 갈채를 받기보다 사회적 거부를 당하며, 대적에 맞서 단호한 공격을 하기보다 대적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대적을 고통스럽게 하기보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할 것이다.



최승연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 (下)

# 칸영화제 수상작 <브로커>, 혈연과 대비되는 성경 속의 가족

기독교, 혈연에 연연하지 않는 가족 개념 자녀 '믿음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 정립해 고아 돌보는, 기독교 복지제도 뿌리 역할 조성 한국교회, 가족 해체 현실 적극 대처할 준비를

### ◆가족과 혈연: 혈연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한 가족의 조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대표작 <어느 가족>(2018)과 이번에 개봉된 <브로커>(2022)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는 가족의 참된 조건에 관한 것이다.

고레에다 감독은 진정한 가족의 조건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로써 그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혈연 기반의 가족 개념을 허물어뜨리려 시도한다.

이렇게 혈연을 초월하는 가족의 형성 조건을 내거는 고레에다 감독의 메시지는 기독교적 가족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물론 영화 <브로커>에 담긴 가족에 대한 그의 메시지가 기독교적 관점이나 동기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혈연에 연연하지 않는 기독교적 가족 개념과 유사한 생각을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경 속 가족 개념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구약 시대에는 가족 개념이 철저히 혈연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구약에서 온전한 가족의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계명과 전통을 받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갱신된다. 더 이상 혈연은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사도 행전에도 "일가"(행 10:24), "네 집" 혹은 "권속"(행 16:31-33)이라는 표현으로 혈연을 기반삼고 있는 가족 개념이 나온다. 그리고 이는 가족 단위 전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사역의 범주로 소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신약성경은 가족이라고 할 때, 혈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나"(마 12:48)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미 혈연에 근거를 둔 가족의 개념은 갱신되었다.

이에 따라 신약 교회는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함께하는 신앙의 가족, 즉 교회에서의 '형제'와 '자매'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새롭게 갱신된 가족 개념을 정립한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서구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기독교 복지제도 정립의 뿌리가 되었다. 고대와 중세 서구인들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천수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책 없이 남겨진 고아들이 많았다. 고아들 가운데 일부는 혈족이나 친척, 아니면 대부모(代父母)들에 의해 양육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예 돌봐줄 사람조차 없는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양육받고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는 교회의 복지제도는 훗날 전문화되어 고아원으로 발전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서구 사람들의 입양 문화를 뒷받침하는 정신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아원들도 대부분 개신교 및 가톨릭 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설립되고 정착되었다. 한국 개신교 선교 또한 고아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85년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얼마간 제중원에서 선교 기회를 엿보다, 바로 이듬해 고아원인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했다. 이 언더우드 학당은 훗날 연세대학교 전신인 경신학당으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한국만 아니라 미전도 지역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전파 사역을 개시할 때 자주 채택해온 방법으로, 혈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한 가족의 근본조건이라는 신약적 가족 개념을 반영하



혈연을 초월한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 <브로커>.

고 있다.

### ◆가족과 신앙: 성경적 가족 개념에 근거한 기독교적 아동복지의 필요성

고레에다 감독이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철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가족 해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로 진입했고, 그 후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및 결혼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부부간 결속도 점차 약화되면서,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는 부모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녀를 유기,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양육책임 포기는 여러 사회 문제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10세 이하 아동의 방치, 유기, 살해에 더해 10세 이상 청소년들이 이혼, 가정불화, 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못이겨 '도요코 키즈'(トヨコ キッズ, 도쿄의 환락가 가부키쵸의 토호극장 옆에 모인 가출 청소년들)로 전락하는 현

상도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레에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혈연에 의존해서는 달성하지 못하는 온전한 가족의 개념을 보여주고, 진정한 가족의 조건은 구성원끼리 서로를 돌아보는 배려, 애정, 희생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문화의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보니, 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무종교적 휴머니즘을 통해 가족 해체와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보다 훨씬 파괴적인 출산율 하락과 결혼감소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의 자원 상당 부분이 노인 복지로 집중될 것이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복지와 지원,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세대가 지속되고 강화되면서, 낙태와 함께 아동의 유기, 학대, 살해 사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재 국내에서 낙태나 아동권리 침해 사례의 절대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적극적인 피임과 태어나는 아동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오히려 비율상으로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족 해체와 그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의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가족 개념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신앙의 표지를 세우는 일로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영화 <브로커>는 곧 일본과 같은 가족 해체와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맞이할 한국 사회가 과연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우리나라도 최근 아동학대 및 살해 사례에 대한 보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유교적인 혈연 개념에 기반을 둔 가족의 울타리가 점차 빈약해지는 가운데,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회는 이처럼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혈연을 초월하여 신앙에 근거를 두는 성경적 가족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 실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위협을 더 잘 방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버려지거나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는 친구약 공동의 계명을 지켜내는 일이다.

박우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b>검진내용</b>	♣ CT 촬영(뇌, 폐 선택)	♣ 수면 대장내시경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수면 위내시경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행 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방법 : 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선택강의 선착순으로)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통일연합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터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담임



(탈북구제사역)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북한농업실무)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전문인사역)  
정규재 목사  
강일교회/연변과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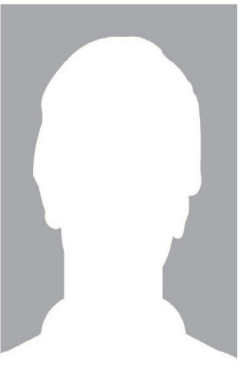
(북한현실/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학교



(북한지하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주관교회)  
정영락 목사  
한빛장로교회



(통일전략/북한통치이해)  
김요한 목사  
유니티미션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북에서 남으로)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청년비전, 스피치/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통일청년세대)  
조평세 박사  
'바로서다' 이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굶주림보다더큰목마름

☺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미주기독교일보